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019년 8월 20일(화)

-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 1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 2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인도 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 3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걷혀 새하늘 보인다
끝 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 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8월 21일(수) 기도 담당 : 김현웅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세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92장 다 같 이
기 도 이승현 집사
성 경 봉 독 민수기 17:12~18:7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이 백성이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97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민수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8월 20일(화)	민 17:12-18:7	이 백성이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
8월 22일(목)	민 18:8-24	영적 레위인의 기업을 되시는 하나님
8월 23일(금)	민 20:1-13	불평하는 자와 가감 없는 순종을 놓친 자의 결국

<광고>

9월부터 새벽기도회(오전5시) 반주로 봉사해 주실 분은 자원 부탁드립니다.
격주로 반주를 합니다. (문의: 010-6403-2441)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8월 20일(화)

만물의 주인되신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높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빛된 복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세상과 이 땅을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임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광복의 날을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열강의 대립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역사의 주권자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의 틈나바퀴를 움직여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공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북핵 위기와 일본의 경제제재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과 평화의 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일을 시작하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예배당의 완공을 이끄셨으니 새문안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 뿌리내리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 온전히 서서 이 나라에 다시금 복음이 소망이 되는 날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 뜻 안에 굳게 세우셔서 교회의 비전을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두시고 친밀한 주님과 교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